

# 가계재무관리자의 경제적 불안과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conomic Distress and th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of the Household Financial Managers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석사 김미린\*\*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생활과학연구소

부교수 홍은실\*\*\*

Dep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

Master : Kim, Me-Lean

Dep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

Associate Professor : Hong, Eun-Sil

---

###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level and general propensity of the economic distress and th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of household financial managers and analyzes the effects of economic distress and the sub dimensions to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s.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overall level of economic distress of household financial managers was middle-levels and th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were slightly higher than mid-point.
2. Regarding the household variables on the economic distress of household financial managers, education levels and occupations of husbands, monthly income, financial knowledge were the variables that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economic distress. That is, higher education levels of husbands, husbands with management-level/professional-level career, higher monthly income, and higher level of financial knowledge generated lower economic distress.
3. Regarding the household variables and the economic distress on th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monthly income, and financial knowledge were the variables tha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On the contrary, income-asset distress was negative variable. Thus, higher monthly income, higher level of financial knowledge, and lower level of economic distress generated higher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detected in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sub dimensions. From this research,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main variables affecting the level of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s are income-asset distresses and financial knowledge.

---

▲주요어(Key Words) : 경제적 불안(economic distress), 재무관리행동(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가계재무관리자(household financial manager)

---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 주저자 : 김미린 (E-mail : okmijnu@hanmail.net)

\*\*\* 교신저자 : 홍은실 (E-mail : esmail@korea.com)

## I. 연구목적

시간과 소득을 비롯하여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는 욕망은 다양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가계는 어떤 욕구를 먼저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해 매 순간 선택해야 한다. 가계를 하나의 생활 단위로 영위해 나가는 인간의 생활은 선택 결정의 연속이며, 자원의 사용과 활용에 관한 합리적인 선택결정을 내림으로써 가계 경제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가계가 경제적으로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나아가 가계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왜냐하면 가계의 안정과 성장은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증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가족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임정빈 외, 1998). 즉 가계의 복지는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뿐 아니라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경제 목표에 대한 달성도가 달라지므로 가계재무관리자의 재무관리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가계의 경제적 자원의 제약이 보다 심해지므로, 가계 내외의 경제 상황이 불안할수록 가계 재무관리자의 재무관리능력은 더욱 중요시된다.

가계의 경제적 불안은 산업 전반의 경기, 노동 시장의 안정성 등과 같은 경제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지난 1997년 IMF 구제금융 지원 이후 또다시 극심한 회복실성 속에 휩싸였다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가계는 이러한 불안에 대비하고 가족원들이 원하는 생활양식을 달성하기 위해 가계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재무계획을 세우고 일련의 재무관리행동을 행해야 한다. 가계는 이와 같은 재무관리행동을 통해 가계의 현재와 미래의 소득과 자산을 보전하고 증식시켜 가계의 소득과 부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소비를 실천하며 재무적 안정감을 달성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높일 수 있다(홍향숙, 1999).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가계재무관리자가 느끼는 경제적 불안과 그 하위영역 정도에 따라 재무관리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것은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재무관리행동을 체계의 과정요소로 보고 일반적인 재무관리에 대한 계획과 수행 차원으로 측정했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실제적인 관리행동으로 파악하고 영역별로 소득관리, 세금관리, 지출관리, 투자관리, 부채관리, 위험관리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가계가 직면하는 다양한 재무영역에 대한 행동들을 측정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계재무관리자의 다양한 측면의 경제적

불안에 따라 여러 영역별 재무관리행동의 수행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는 개별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불안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재무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경제적 불안

불안은 두려움과 비슷한 개념으로 걱정과 신체적 각성을 고조시키는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불안(economic distress)은 가계의 경제적 상태에 관한 개념이다. 경제적 상태에 관한 개념은 경제적 복지, 경제적 안전, 경제적 안정, 경제적 곤란, 경제적 불안 등 현재 여러 가지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경제적 복지(economic well-being)는 하나의 추상적인 상위개념인데 빈곤, 소득 적정도 등에 의해 측정되기도 하였으나 뚜렷한 개념정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경제적 안전(economic security)은 가계에 경제적 변동이 발생했을 때 일정수준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는 데에 현재의 자산이 얼마나 유효한가의 개념이며, 경제적 안정(economic stability)은 가계에 경제적 변동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상황이 얼마나 항상적인가 하는 항상성의 개념이다. 경제적 곤란(economic hardship)은 경제적 긴장과 같은 맥락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 돈이 없어서 생활수준을 낮추거나 할 일 또는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된 정도(Lempers, Clark-Lempers & Simons, 1989), 소득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Liker & Elder, 1983)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경제적 불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Voydanoff (1990)는 경제적 불안이란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구조적 요인으로서 가족의 경제적 복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 즉, 남성의 worker-earner로서의 역할 수행 문제 발생을 일컬어 경제적 불안이라고 하였다. worker로서의 역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고용관계이며 earner로서의 역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소득인데, 이는 다시 주관적 불안과 객관적 불안으로 구분되어 4개의 차원을 가진다. 첫번째는 고용에 대한 주관적 불안 차원인 '고용불확실'로 실업 시작 및 기간에 대한 추측이나 재취업 가능성 추측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두번째는 고용에 대한 객관적 불안 차원인 '고용 불안장'으로 실제 실업기간 및 실업 횟수·취업횟수, 강제 퇴직여부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세번째는 소득에 대한 주관적 불안 차원인 '경제적 긴장'으로 재정적 충족도와 재정상태 적응력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네번째는 소득에 대한 객관적 불안 차원인 '경제적 발달'로 일정기간 자원·소득의 상실 여부와 정도, 현 재정요구에 부적

합 여부 등이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황덕순(1995)은 가계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거나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경제적 안정이라고 할 때, 가계 내·외의 사건과 자극에 의해 경제적 안정이 위협당한 상태를 경제적 불안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인 4개의 구성체(물가불안, 소득불안, 고용불안, 재정불안)에 상대적 박탈 불안을 더한 5개의 경제적 하위범주에서 불안이 발생한다고 보고 이들 불안에 대하여 스스로 위태롭다고 인지하는 주관적 불안과 객관적으로 불안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객관적 불안으로 나누어 불안구조를 설명하였다. 연구 결과, 가계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주관적 불안 정도가 객관적 불안 정도보다 상당히 높으며, 물가, 소득, 재정영역에서의 불안이 크고 고용과 상대적 박탈 영역에서는 불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불안은 주거소유형태, 가장의 직업지위, 소득의 크기, 자산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데 주관적 불안은 소득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객관적 불안은 자산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경(1999)은 Voydanoff의 경제적 불안 척도를 사용하여 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소비행동을 측정하였는데 주부들은 고용상태보다는 소득 상태에 대해 불안을 더 많이 느끼며 객관적인 경제적 상태보다 주관적으로 더 높은 불안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향숙(1999)은 가계의 불안정성을 고용불안정성(가장의 실직경험, 현재 직업의 지속가능성)과 소득불안정성(소득의 유입시기, 매달 소득액)으로 측정하여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를 보았다. 그 결과 소득불안정성 수준보다 고용불안정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정서린과 장윤옥(2007)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5차원의 경제적 불안(소득·자산 불안, 재정안정성 불안, 필수지출 불안, 선택지출 불안, 부채불안) 척도를 구성하여 주부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소득·자산 불안과 재정안정성 불안이 중간점수보다 더 높게 나와 상대적으로 불안수준이 높았으며, 부채불안, 선택지출 불안, 필수지출불안은 중간점수 미만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소득·고용관련변인만을 경제적 불안정 요인으로 주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의 경제적 불안은 가정 내외의 여러 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이므로 경제적 불안의 하위영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경제적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측정된 정서린 등(2007)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 2. 재무관리행동

재무관리행동은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측정되는데 측정내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하나는 재무관

리행동을 재무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으로 측정(김효정, 2000; 이상협, 1999; 이선행·이연숙, 1997; 임정빈 외, 1995, 조동필 외, 2003)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재무관리행동을 가계의 재정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 소득관리, 세금관리, 지출관리, 부채관리, 투자관리, 위험관리행동 등으로 나누어 영역별로 측정(정서린 외, 2007; 정운영, 2001; 홍향숙, 1999)하는 것이다.

재무관리행동을 체계의 과정요소로 보고 일반적인 재무관리에 대한 계획과 수행 또는 평가의 차원만을 측정하는 것은 가계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재무영역에 대한 행동들을 측정하지 못함으로써 실제적인 재무관리행동의 측면을 다루었다고 보기 힘들기(정운영 외, 2002) 때문에 다차원적인 재무관리행동을 영역별로 측정한 연구가 보다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재무관리행동을 영역별로 측정한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은양(1994)은 재무관리행동을 재정계획행동, 저축행동, 구매행동, 자녀용돈교육행동의 4가지 영역으로, Parrotta와 Johnson(1998)은 현금, 신용, 위험, 은퇴와 유산, 자본축적, 일반적 재무관리의 6가지 영역으로, 배희선과 최현자(1996)는 재무관리행동을 화폐관리행동,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노후준비행동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다. 또한 홍향숙(1999)은 재무관리행동을 소득관리, 세금관리, 지출관리, 투자관리, 부채관리, 위험관리행동의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한 뒤 각 관리행동별로 정보수집, 계획, 실행, 점검, 평가로 다시 구분하였다. 정운영 등(2002)은 현금 및 지출관리, 세금관리, 차용관리, 위험관리, 저축 및 투자관리 5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홍향숙(1999)의 연구를 참고하여 재무관리행동을 소득관리행동, 세금관리행동, 지출관리행동, 투자관리행동, 부채관리행동, 위험관리행동으로 구성하였다.

## 3. 경제적 불안과 재무관리행동

경제적 불안과 재무관리행동간의 관계를 다룬 대부분 연구(정서린 외, 2007; 정운영 외, 2002; 홍향숙, 1999)는 경제적 불안이 재무관리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불안의 하위영역에 따라 부분적으로 정적 영향을 보고한 결과(정서린 외, 2007)들도 있다. 홍향숙(1999)은 고용과 소득이 모두 불안정한 가계들은 가계소득과 자산 수준과 같은 경제적인 상태가 평균보다 좋지 않고, 재무관리행동 즉 소득관리행동, 세금관리행동, 지출관리행동, 투자관리행동, 부채관리행동, 위험관리행동 수준 또한 다른 유형의 가계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으며 재정만족도 또한 낮았다고 하였다. 정서린 등(2007)은 가계의 경제적 불안 정도에 따라 주부의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소득·자산불안과 재정안정성 불안이 높은 주부들은 낮은 주부들보다 투자관리행동을 잘하

지 못하며, 선택적 지출불안이 높은 주부들은 낮은 주부들보다 소득·지출관리행동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수지출불안과 부채불안이 높은 주부들은 낮은 주부들보다 투자관리행동과 위험관리행동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영 등(2002)은 물가불안이 재정관리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재무관리행동과 유사한 변인으로 대처행동이 있는데 그 내용 구성을 보면 재무관리행동과 비슷하며 대개 재무관리행동의 하위영역의 성격을 띤다. Fitzsimmons 등(1993)은 대처행동의 하위영역으로 화폐사용계획, 목표지향의 저축, 지출기록, 예산수립, 지출평가, 구매 전 비교, 영수증 보관, 외상구매의 이자 고려, 구매 목록 작성, 임대료 지불연기를 제시하였다. 황덕순(1995)은 불안 수준 및 불안 유형과 대처행동 중 의도적 관리 특성을 갖는 행동은 부적 상관을 보여 불안 수준이 낮을수록 의도적 관리행동을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Voydanoff와 Donnelly(1989)는 경제적 불안이 큰 가계일수록 대처행동점수가 높아서 가계는 경제적 불안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관리행동을 더 많이 수행한다고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서정희와 홍순명(2000)은 소득불안과 고용불안, 재정불안, 상대적 박탈불안의 경제적 불안감이 대학생의 식생활 대처행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정혜경(1999)은 가계의 경제적 불안을 주관적 불안과 객관적 불안, 소득불안과 고용불안으로 구분하고 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소비행동을 살펴보았는데, 주부들은 객관적인 가계의 경제적 상태보다 주관적인 불안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 고용상태보다 소득 상태에 대한 불안이 더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계관리자의 경제적 불안은 가계의 소비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즉, 경제적 불안이 높을수록 가계는 가격중심, 양중심, 품질중심, 사용양식 중심의 소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경제적 불안이 재무관리행동에 일반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재무관리행동의 하위영역에 따라 영향력의 방향과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경제적 불안과 재무관리행동의 관련변인

##### 1) 경제적 불안의 관련변인

가계관리자의 연령은 경제적 불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김미현(1993)은 주부의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남편의 퇴직 및 질병 또는 배우자의 실직 등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으며, 노자경(1996)은 소비지출, 자산, 소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40대의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활주기 상 자녀의 교육 등 여러 가지 경제자원의 요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노자경

등(1991)과 이종혜(1993)도 가구주의 연령과 경제적 안정도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홍향숙(1999)은 부인의 연령이 높은 가계는 고용불안을 더 느껴 고용불안정·소득불안정, 고용불안정·소득안정 유형에 더 많이 속한다고 하였다.

취업여부 및 직업지위 역시 경제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김민정(1994)은 다음 수입이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인지,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가계의 경제적 불안수준은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소득을 획득하는 가계와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황덕순(1995)은 가장과 주부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물가불안과 소득불안, 상대적 박탈불안, 주관적 고용불안이 감소하는데, 고용불안에 있어서 전업주부보다 생산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더 높은 불안을 보여 가장의 경우와 다른 점을 보인다고 하였다.

학교교육은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홍향숙, 1999)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반드시 소득이 상승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과 고임금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임금과 취업가능성을 통해 경제적 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Caplovitz(1979)에 의하면, 대학졸업자들이 낮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 그들의 재정적 상황이 실제로 개선되었다고 말하는 경향이 더 많으며 악화되었다고 말하는 경향이 훨씬 적다고 하였다. 한편 정혜경(1999)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준거 집단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 심리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하였으나, 황덕순(1995)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학력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났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상대적 박탈불안이 높았으며 그 차이가 1.8배에 달한다고 하였다.

월평균가계소득 역시 경제적 불안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임이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가정경제의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보선·이영호, 1995; 김미현, 1993; 박선옥, 1996; 이정우·최덕경, 1992). 황덕순(1995)은 변인들의 속성에 따라 소득관련변인·자산관련변인·기타변인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순수영향력을  $R^2$  값으로 살펴보았는데, 이 중 월평균소득, 소득원천수, 소득원천별 가계 유형으로 구성된 소득관련변인의 순효과가 .0754로 가장 높았다. 이와 비슷하게 정혜경(1999)의 연구에서도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불안의 영향을 표준회귀계수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월평균소득이 주관적 불안과 객관적 불안 모두에서 각각 가장 큰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주택을 소유함은 주거공간의 확보라는 물리적 의미 이외에도 사회적 지위와 계층의 표현이 되며, 가족들에게 안정감과 심리적인 만족감을 준다(곽인숙, 1989). 주택소유여부가 경제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나 대체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가계가 전세나 월세의 가계보다도 재정만족도가 높았다(계선자·유용용, 2002; 김정숙, 1996). 따라서 재정 스트레스 및 경제적 불안이 낮을수록 재정만족도

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참고할 때, 주택소유여부는 경제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사료된다.

## 2) 재무관리행동의 관련변인

연령은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Titus 등(1989)에 의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재무계획을 더 잘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동필 등(2003)은 가구주 연령이 재무관리행동과 재무관리계획, 재무관리수행에 각각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나, 30세 미만의 가구가 50세 이상의 가구에 비해 재무관리행동을 잘한다고 하였다. 이영옥(1990)은 부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계관리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양(1994)은 재무관리행동의 하위영역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부인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20대 연령집단이 40대와 50대의 연령 집단보다 저축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주부의 직업과 재무관리행동을 살펴보면 최동숙(1991)과 김순미(1993)는 직업이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범수인과 문숙재(1992)의 연구에서는 높은 직업 지위에 있는 주부들이 낮은 직업 지위에 있는 주부들보다 더 많은 재무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린 등(2007)은 고용관련변인으로서 주부의 직업에 따라 소득·지출 관리행동이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상용직근로소득자의 관리행동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뿐 만 아니라 남편취업여부 역시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편의 취업여부는 투자관리, 소득·지출관리, 위험관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남편이 비취업 상태인 것 보다 취업한 상태일 때 위의 관리행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직업지위에 따른 재무관리행동을 살펴보면 강혜경(1990)은 남편이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집단이 사무·기술직과 자영상공업에 종사하는 집단보다 더 적극적인 자산증식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고, 김은양(1994)은 남편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집단이 판매숙련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집단보다 구매행동을 더 잘 수행한다고 하였다.

교육수준과 재무관리행동의 계획 및 실행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예산을 합리적이고 정기적으로 세우며(임정빈 외 1995; Beutler & Mason, 1987; Titus, et al., 1989), 부부 전체의 재무계획행동의 경우 대졸집단이 고졸이하의 집단보다 재무계획을 더 잘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양, 1994). 박현미(1986)는 주부의 교육수준과 관리능력은 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특히 계획부문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교육수준과 재무관리행동의 각 하위영역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은데, 황덕순(1995)과 김시월과 박배진(1999)은 주부의 학력이 낮을수록 소극적 대처행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피동적 적응행동과 규범적 절약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였으며 정혜경(1999)은 남편의 교육수준이 경제적 불안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가격 중심·양 중심·품질 중심·사용양식 중심 소비행동 모두에 간접적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가계소득은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이다. 이선형(1995)에 의하면 대체로 월평균 총소득이 높을수록 재무관리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향숙(1999)은 평균 가계소득에 있어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가장의 고용이 불안정하며 소득도 불안정한 가계일수록 가계소득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그러한 가계일수록 소득관리행동, 투자관리행동, 부채관리행동, 위험관리행동과 관련된 행동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린 등(2007)은 소득관련변인으로서 월소득 및 주소득 외 추가소득 여부, 시기와 금액에 대한 소득안정성등을 살펴보았을 때 이들 변인은 주부의 재정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소득관련변인들에 대한 불안이 높지 않을수록 투자관리행동과 위험관리행동을 더욱 잘 수행한다고 하였다.

강혜경(1990)은 주택소유 집단이 무주택 집단보다 더 합리적인 저축, 투자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주택은 자산 가치를 지니는 내구소비재로서 주거의 안정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황덕순, 1995)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소유여부는 경제적 불안 및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사료되나 이들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임정빈 등(1998)은 재무지식이 재무관리계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Titus 등(1989)과 고보선 등(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조동필 등(2003)에서도 재무지식수준이 재무관리행동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재무지식수준은 재무관리행동의 계획과 수행 모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인적자원 중에서 연령·직업지위·교육수준·재무지식을, 물적자원 중에서는 월평균 가계소득과 주택소유형태를 배경변인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들 모두 가계의 특성으로서 경제적 불안과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가계특성변인'로 재정의하여 영향력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계재무관리자의 경제적 불안과 재무관리

행동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계재무관리자의 경제적 불안에 미치는  
가계특성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가계재무관리자의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가계특성변인과 경제적 불안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해석하였다. 경제적 불안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 Chronbach' α는 .95이다.

소득·자산 불안은 가계의 총소득·자산수준, 저축수준 등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거나 갑작스런 지출에 대비한 여유 자금에 만족하지 못할 때 가계재무관리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불안을 말하며, 신뢰도 계수는 .90이다. 재정안정성 불안은 은퇴자금이나 노후자금, 자녀의 대학등록금과 결혼자금 마련, 비상시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안되어 있을 때 가계재무관리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불안을 말하며 신뢰도는 .83이다. 필수지출불안은 생활필수품 구매와 각종 공과금, 자녀의 등록금 납부가 어렵거나 부담스러울 때 가계재무관리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불안을 말하며 신뢰도는 .83이다. 선택지출불안은 경조사 및 친인척 관련 행사, 노부모부양과 관련된 지출이 부담스러울 때 가계재무관리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불안을 말하며 신뢰도는 .78이다. 부채불안은 은행 또는 회사에서 대출한 융자금이나 주변사람들에게 빌린 돈이 부담스러울 때 가계재무관리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불안을 말하며 신뢰도는 .84이다.

2. 변인의 정의 및 척도의 구성

1) 경제적 불안

경제적 불안은 가족의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주는 가계구조적 요인에서 발생한 문제로서, 가계재무관리자가 경제적 불안의 하위영역에 대하여 느끼는 주관적 위협상태로 정의한다. 척도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서린 등(2007)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소득·자산불안 9문항, 재정안정성불안 7문항, 필수지출불안 6문항, 선택지출불안 6문항, 부채불안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각 문항은 5점 Likert방식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불안이 높은 것으로

<표 1> 경제적 불안 척도

소득자산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리 가정의 소득으로 필요한 모든 지출을 충당할 수 있다.</li> <li>*2. 우리 가정의 총 소득에 만족한다.</li> <li>*3. 현재 우리 가정이 하고 있는 저축 수준에 만족한다.</li> <li>*4. 우리 가정의 총 자산 수준에 대하여 만족한다.</li> <li>*5. 갑작스런 지출에 대비하여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에 만족한다.</li> <li>6. 수입이 매달 규칙적이지 않아 불안하다.</li> <li>7. 가계소득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저축액이 적어 불안하다</li> <li>8. 남편(또는 가장)의 월소득이 줄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li> <li>9. 가족 중 단 한사람만이 고정수입자라는 것이 불안하다.</li> </ul>
재정안정성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앞으로 우리 가정의 재정 상태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li> <li>*2. 현재 우리 가정의 재정 상태는 과거보다 더 나아졌다고 생각한다.</li> <li>3. 장차 자녀의 결혼자금 마련이 부담스럽다.</li> <li>4. 남편(또는 가장)의 은퇴 후의 생활이 불안하다.</li> <li>5. 장차(혹은 현재) 자녀의 대학등록금 마련이 부담스럽다.</li> <li>6.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가 안 되어있어 불안하다.</li> <li>7. 갑작스런 질병, 사고, 실직 등의 비상시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안 되어있어 불안하다.</li> </ul>
필수지출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리 집의 생활비는 충분하다.</li> <li>*2. 살림을 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다.</li> <li>3. 자녀의 학교 등록금 납부가 부담스럽다.</li> <li>4. 생활필수품 구매조차도 어려움을 겪는다.</li> <li>5. 각종 요금(전기료, 관리비 등)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li> <li>6. 자녀의 용돈을 주는데 어려움을 겪는다.</li> </ul>
선택지출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댁 혹은 친정식구 관련 행사에 대한 지출이 부담스럽다.</li> <li>2. 시댁 혹은 친정부모 부양과 관련된 지출이 부담스럽다.</li> <li>3. 이웃, 동료, 친척들의 경조사로 인한 부조금 지출이 부담스럽다.</li> <li>4. 가족의 건강관리 비용 및 질병 치료비 지출이 부담스럽다.</li> <li>5. 자동차 유지 및 수리비가 부담스럽다.</li> <li>6. 가구, TV, 냉장고 등을 새로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부담스럽다.</li> </ul>
부채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리 집이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한다.</li> <li>2. 우리 집의 자산을 생각할 때 현재의 부채(빚)가 부담스럽다.</li> <li>3. 은행(또는 회사)에서 대출한 융자금이 부담스럽다.</li> <li>4. 주변사람(이웃, 친척, 동료 등)에게 빌린 돈이 부담스럽다.</li> </ul>

\* 표시는 역산문항임

2) 재무관리 행동

재무관리행동은 가계의 재정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와 미래의 소득과 자산을 보전하고 증식시켜 안정과 성장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는 것과 관련된 행동으로 정의한다. 척도는 홍향숙(1999)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소득관리행동 5문항, 세금관리행동 5문항, 지출관리행동 5문항, 투자관리행동 5문항, 부채관리행동 5문항, 위험관리행동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 각 문항은 5점 Likert방식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무관리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재무관리행동 전체의 신뢰도 계수 Chronbach' α는 .91이다.

소득관리행동은 가계소득의 극대화를 위한 행동으로 가계소득의 절대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행동을 의미하며 신뢰도 계수 Chronbach' α는 .73이다. 세금관리행동은 부당한 세금을 지불하는 일을 줄이고 절세 혜택을 높여 가처분소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81이다. 지출관리행동은 가계소득의 실질적 증가를 위한 가계 소비지출의 효율적인 배분 및 사용과 관련된 행동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78이다. 투자관리행동은 가계의 자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이용한 저축, 증권투자, 부동산투자 등의 효과적인 이용과 관련된 행동을 의미하며 신뢰도 계수는 .84이다. 부채관리행동은 가계의 소비수요

<표 2> 재무관리행동 척도

소득관리행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문, 잡지, 전문서적 등에 배우자나 가족원들의 직장 일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면 올려두거나 메모해둔다.</li> <li>2. 가계소득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근로소득(예;월급 등)뿐만 아니라 재산소득(예; 은행이자, 집세 등)이 있도록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li> <li>3. 절약, 부업, 재테크 등을 통해 근로소득이외에 재산소득을 가지기 위해 노력한다.</li> <li>4. 가계 주 소득자(예;남편)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지식이나 기능(예;자격증, 컴퓨터 사용 등)을 제때에 익히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li> <li>5. 우리 집의 씀씀이에 비추어 불 대 현재의 가계소득이 적절한지 또는 부족한지 평가해본다.</li> </ol>
세금관리행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신문·잡지의 경제란, 전문서적 등에 가정생활과 관련된 세금혜택제도 및 절세방법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올려두거나 메모해둔다.</li> <li>7. 연중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 납부시기를 파악하여 미리 세금납부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li> <li>8. 세금의 납부기일을 지킴으로써 가산세를 지불하지 않도록 한다.</li> <li>9. 과다하게 부과된 세금은 없는지, 세금을 연체하지 않고 제때에 납부했는지 확인한다.</li> <li>10. 절세방법을 최대한 활용했는지 평가해보고, 그 결과를 다음 기회에 참고한다.</li> </ol>
지출관리행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효율적인 지출관리(생필품의 가격변동 여부 및 상설할인매장·할인점의 위치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신문·잡지를 이용하거나 친구들에게 물어본다.</li> <li>12. 소득을 꼭 지불해야 할 부분(예;저축, 세금, 관리비, 수업료 등)에 먼저 배분하고 남은 금액으로 식비, 피복비, 교양오락비 등에 사용한다.</li> <li>13. 가계의 지출비목(예;식비, 교통비 등)을 구분해서 각 비목별 지출내용 및 지출금액을 가계부에 기록한다.</li> <li>14. 어떤 비목의 예산이 모자라게 책정되었으며, 어떤 비목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는지를 두세달마다 주의 깊게 분석해본다.</li> <li>15. 월말과 연말에 가계지출 내용을 결산하여, 이때 지출이 가족원들의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었는지 평가·반성한다.</li> </ol>
투자관리행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 신문, 잡지의 경제란, 인터넷, 재테크 서적을 이용하여 투자(예;저축, 증권, 부동산 등)에 관한 내용을 올려두거나 메모해둔다.</li> <li>17. 가계의 투자목표와 현재의 경제수준에 적절한 투자방법(예;예금, 적금, 신탁, 증권, 부동산 등) 및 투자기간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li> <li>18. 투자(저축)할 돈은 생활비로 쓰이기 전에 미리 떼어놓는다.</li> <li>19. 금리 상승시에는 단기금융상품(6개월-1년)이나 변동 금리형 상품에 투자하며, 금리 하락시에는 장기금융상품(2년-5년)이나 확정 금리형 상품에 투자한다.</li> <li>20. 선택한 저축방법과 투자방법이 저축목표와 투자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지 6개월-1년 단위로 평가한다.</li> </ol>
부채관리행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 주택 마련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의 팸플릿을 주의 깊게 살펴보거나(보았거나) 금융기관의 대출담당 직원과 상담한다.</li> <li>22.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의 할부대금과 현금서비스 이용액을 갚기 위해 지출되는 돈이 생활비의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li> <li>23. 현재 부채가 있을 경우 매월 부채(예;대출, 융자, 신용카드의 할부이용, 사채 등)를 제대로 갚고 있는지 자주 확인해 본다.</li> <li>24. 가계자금(주택자금, 학자금융자 등)이 필요할 때(또는 과거에 필요했을 때) 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한다.</li> <li>25. 현재 부채가 있을 경우(또는 과거에 부채가 있었을 경우) 1년 단위로 가계의 부채상환결과를 평가해본다.</li> </ol>
위험관리행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6. 교통사고나 실직, 질병에 대한 준비책의 마련을 우리 집의 중요한 문제로 설정하였다.</li> <li>27. 보험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전문가(보험회사 직원, 재무설계사 등)와 상담한다.</li> <li>28. 생명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또는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였다.</li> <li>29.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고 있는지 확인한다.</li> <li>30. 가계가 가입한 보험의 종류 및 보험금이 가계의 위험대비책으로 적절한지 평가한다.</li> </ol>

<표 3> 재무지식 척도

재무 설계 기초	*1. 인플레이션은 물가수준의 하락을 의미한다. *2.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실제 경험하는 물가를 반영한다. *3. 우리가 투자 시 고려해야 할 투자의 3원칙은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이다.
예금	*4. 완전비과세 저축상품은 우리나라에 없다. *5. 예금자보험법에 의해 예금보험의 최대한도는 금융기관당 3,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6.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은 일반적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주식 부동산	*7. 종합주가지수는 주시가격의 변동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8. 채권은 주식과 달리 해당 회사나 국가가 존재하는 한 원금상환이 보장된다. *9. 재건축의 경우 세입자에게 분양권이 주어진다. *10. 확정일자만 공증 받으면 전세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용 부채	*11. 담보가 없으면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다. *12. 서명된 신용카드의 분실 신고 전 60일 이내의 부정사용(제3자의 사용)금액은 전액 면책 받을 수 있다.
세금	*13.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14. 증여세 공제한도는 성인 자녀의 경우 3,000만원이다. *15. 소득세 산출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 된다.
보험	*16.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은 보험 계약서를 작성한 때부터이다. *17.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은 7년 이상 예치하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18.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	*19.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다. *20.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보험이다.

\* 표시는 틀린문항임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사례수(명)	백분율(%)	변인	구분	사례수(명)	백분율(%)	
남편 연령	30세 이하	4	9	아내 연령	30세 이하	14	3.0	
	31-40세	87	18.8		31-40세	139	29.9	
	41-50세	279	60.3		41-50세	251	54.0	
	51-60세	80	17.3		51-60세	55	11.8	
	61세 이상	13	2.8		61세 이상	6	1.3	
합계		463	100.0	합계		465	100.0	
남편 최종 학력	중졸이하	7	1.5	아내 최종 학력	중졸이하	26	5.6	
	고교졸업	155	33.3		고교졸업	201	42.9	
	전문대졸업	88	18.9		전문대졸업	101	21.6	
	대학교졸업	178	38.2		대학교졸업	118	25.2	
	대학원이상	38	8.2		대학원이상	22	4.7	
합계		466	100.0	합계		468	100.0	
남편 직업	무직,휴직	25	5.4	아내 직업	주부,무직	218	47.1	
	단순노무직	24	5.2		단순노무직	28	6.0	
	생산기능직	110	23.9		생산기능직	36	7.8	
	자영직	105	22.8		자영직	57	12.3	
	사무직	140	30.4		사무직	81	17.5	
	관리직	24	5.0		관리직	3	.6	
	전문직	34	7.4		전문직	40	8.6	
합계		462	100.0	합계		463	100.0	
월 평균 소득	200만 이하	75	19.4	주택 소유	자가	362	77.4	
	201-400	187	48.4		전세	80	17.1	
	401-600	100	25.9		월세	26	5.6	
	601-800	18	4.7		합계		468	100.0
	801만 이상	6	1.6		합계		469	100.0
합계		386	100.0	합계		469	100.0	
재무 지식	20점 이하		37	7.9				
	21 - 40점		124	26.4				
	41 - 60점		207	44.1				
	61 -80점		90	19.2				
	81점 이상		11	2.3				
합계			469	100.0				



및 경제적 목표달성에 필요한 부채(신용카드의 할부이용, 대출, 사채 등)의 효율적인 이용 및 상환과 관련된 행동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63이다. 위험관리행동은 질병, 사고, 실업, 화재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소득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행동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83이다.

3) 재무지식(가계특성변인)

재무지식이란 재무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관리 관련지식으로서 이러한 개념들을 알고 자산과 그것의 관리방법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척도는 조동필(2003)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재무설계기초관련 3문항, 예금관련 3문항, 주식과 부동산관련 4문항, 신용과 부채관련 2문항, 세금관련 3문항, 보험관련 3문항, 연금관련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 각 문항에 대해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로 응답하게 하였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맞췄을 경우 1점, 틀렸을 경우와 ‘모르겠다’로 응답한 경우 0점으로 측정하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재무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조사대상은 <표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광주광역시 거주 20대 이상 성인 가계재무관리자로 다양한 연령대의 표집을 위해 임신육아교실 참가자, M초등학교 · D중학교 · P고등학교 · J대학교 학부모, G아파트 · S아파트 부녀회 회원을 대상으로

로 2009년 6월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481부가 회수되었고 분석에는 469부가 사용되었다.

자료의 통계적 처리는 SPSS 17.0 for Window를 사용하였다.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때 기본가정 위반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잔차분석을 실시하고 Cook 거리와 Mahalanobis의 거리,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와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IV. 결과해석

1. 경제적 불안과 재무관리행동의 일반적 경향

1) 경제적 불안

조사대상 가계재무관리자의 경제적 불안의 일반적 경향은 <표 5>와 같다. 경제적 불안 전체 점수는 평균 3.00으로 가계재무관리자가 느끼는 주관적 경제적 불안은 중간정도의 수준이었다. 한편 경제적 불안의 하위영역 중 재정안정성불안이 5점 만점에 평균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 · 자산불안(3.32), 선택지출불안(2.96), 부채불안(2.79), 필수지출불안(2.5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계선자와 유을용(2002)의 연구에서 도시주부의 재정스트레스가 자산스트레스(3.10), 소득스트레스(2.55), 지

<표 5> 경제적 불안의 일반적 경향

(n=469, 5점 만점)			
변인	하위영역	평균(M)	표준편차(SD)
경제적불안 (1-5점)	소득 · 자산불안	3.32	.83
	재정안정성불안	3.35	.64
	필수지출불안	2.51	.56
	선택지출불안	2.96	.87
	부채불안	2.79	.73
전체		3.00	.73

<표 6> 재무관리행동의 일반적 경향

(n=469, 5점 만점)			
변인	하위영역	평균(M)	표준편차(SD)
재무관리행동 (1-5점)	소득관리행동	3.21	.73
	세금관리행동	3.50	.81
	지출관리행동	3.06	.78
	투자관리행동	2.80	.88
	부채관리행동	3.38	.90
	위험관리행동	3.81	.79
전체		3.29	.61

출스트레스(2.48), 부채스트레스(2.32)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와 거의 일치하며, 정서된 등(2007)의 연구에서 주부의 경제적 불안의 일반적 경향이 소득·자산불안(3.45), 재정안정성불안(3.29), 부채불안(2.89), 선택지출불안(2.87), 필수지출불안(2.43)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2) 재무관리행동

조사대상 가계재무관리자의 재무관리행동의 일반적 경향은 <표 6>과 같다. 재무관리행동 전체 평균은 3.29로 중간 점수(3.00)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위험관리행동(3.8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금관리행동(3.50), 부채관리행동(3.38), 소득관리행동(3.21), 지출관리행동(3.06), 투자관리행동(2.8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홍향숙(1999)의 도시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위험관리행동(3.86)이 재무관리행동 하위영역 중 가장 점수가 높고, 부채관리행동(3.84), 세금관리행동(3.82), 소득관리행동(3.59), 지출관리행동(3.42), 투자관리행동(3.30)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거의 일치한다.

2. 경제적 불안에 대한 가계특성변인의 영향력

가계재무관리자의 경제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가계특성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경제적 불안의 각 하위영역과 경제적 불안 전체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계특성변인은 모두 9가지 변인으로 구성되었으나, 상관관계 분석결과 남편연령과 아내연령, 남편의 학력과 아내의 학력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 다중공선성이 우려되었다. 따라서 가계재무관리자가 주로 여성임을 고려하여 남편연령을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주소득자가 가장 즉 남편임을 고려하여 아내최종학력을 분석에는 제외하여 회귀모형을 구성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의 가정 위반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Durbin-Watson의 d검정을 실시하고, Cook 거리·Mahalanobis의 거리·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및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의심되지 않았다. 또한 독립변인들 중에서 남편직업유형과 아내직업유형, 주택소유여부는 가변인(dummy variable)을 사용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가계특성변인이 경제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가계특성변인 중 월평균소득( $\beta=-.29, p<.001$ ), 남편직업유형( $\beta=-.16, p<.01$ ), 재무지식( $\beta=-.13, p<.01$ ), 남편최종학력( $\beta=-.12, p<.05$ )이 경제적 불안 전체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며, 가계특성변인들은 경제적 불안 전체를 약 22% 설명하였다( $F=15.36, p<.001$ ). 이는 가계의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표 7> 경제적 불안에 대한 가계특성변인의 영향력

경제적불안	가계특성변인	B	$\beta$	F value	R <sup>2</sup>	경제적불안	가계특성변인	B	$\beta$	F value	R <sup>2</sup>
소득 자산 불안	아내연령	.07	.06	20.21***	.28	재정 안정성 불안	아내연령	-.07	-.09	6.59***	.11
	남편최종학력	-.05	-.06				남편최종학력	-.10	-.16**		
	남편직업유형 <sup>+</sup>	-.38	-.23**				남편직업유형	-.12	-.09		
	아내직업유무 <sup>++</sup>	.00	.00				아내직업유무	-.05	-.04		
	주택소유여부 <sup>+++</sup>	.04	.02				주택소유여부	.12	.08		
	월평균소득	-.18	-.37***				월평균소득	-.06	-.17**		
	재무지식	-.21	-.04	재무지식	-.14	-.04					
필수 지출 불안	아내연령	-.01	-.01	2.68**	.05	선택 지출 불안	아내연령	-.10	-.09	8.22***	.13
	남편최종학력	-.02	-.03				남편최종학력	-.07	-.08		
	남편직업유형	-.10	-.11				남편직업유형	-.14	-.08		
	아내직업유무	-.04	-.04				아내직업유무	-.00	-.00		
	주택소유여부	-.08	-.06				주택소유여부	-.01	-.00		
	월평균소득	-.02	-.05				월평균소득	-.09	-.19**		
	재무지식	-.37	-.12*	재무지식	-.73	-.15**					
부채 불안	아내연령	.03	.03	8.51***	.14	경제적 불안 전체	아내연령	-.02	-.02	15.36***	.22
	남편최종학력	-.07	-.10				남편최종학력	-.06	-.12*		
	남편직업유형	-.10	-.07				남편직업유형	-.17	-.16**		
	아내직업유무	-.13	-.09				아내직업유무	-.05	-.04		
	주택소유여부	.24	.13**				주택소유여부	.07	.05		
	월평균소득	-.11	-.25***				월평균소득	-.09	-.20***		
	재무지식	-.59	-.13*	재무지식	-.42	-.13**					

\*p<.05, \*\*p<.01, \*\*\*p<.001

<sup>+</sup> : 남편직업유형은 사무·관리·전문직을 1, 나머지는 0으로 가변인 처리하였음

<sup>++</sup> :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1, 나머지는 0으로 가변인 처리하였음

<sup>+++</sup> : 자가 주택은 1, 나머지는 0으로 가변인 처리하였음

남편의 직업이 사무·관리·전문직인 경우, 가계재무관리자의 재무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가계재무관리자가 느끼는 주관적 경제적 불안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불안 하위요인별로 가계특성변인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보면, 소득·자산불안에서는 월평균소득( $\beta=-.37, p<.001$ )과 남편직업유형( $\beta=-.23, p<.01$ )이 소득·자산불안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특성변인들은 소득·자산불안을 약 28% 설명하였다( $F=20.21, p<.001$ ). 이는 가계의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남편의 직업이 사무·관리·전문직인 경우 가계재무관리자가 총소득 및 자산수준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불안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가장의 직업 지위가 높을수록 소득불안이 낮은 것은 직업지위와 소득수준과의 관계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밝힌 황덕순(1995)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경제적 불안 하위영역 중 재정안정성불안에서는 월평균소득( $\beta=-.17, p<.001$ )과 남편최종학력( $\beta=-.16, p<.01$ )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특성변인들은 재정안정성불안을 약 11% 설명하였다( $F=6.59, p<.001$ ). 이는 가계의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남편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가계재무관리자가 자신의 은퇴 및 노후자금 마련, 자녀의 대학등록금 및 결혼자금 마련,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한 자금 마련 등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불안의 수준이 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불안 하위영역 중 필수지출불안에서는 재무지식( $\beta=-.12, p<.05$ )만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특성변인들은 필수지출불안을 약 5% 설명하였다( $F=2.68, p<.01$ ). 이는 가계재무관리자의 재무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필수품 구매와 각종 공과금납부, 자녀의 등록금납부와 같은 필수적 지출에 대한 주관적 불안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불안 하위영역 중 선택지출불안에서는 월평균소득( $\beta=-.19, p<.01$ )과 재무지식( $\beta=-.15, p<.01$ )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특성변인들은 선택지출불안을 약 13% 설명하였다( $F=8.12, p<.001$ ). 이는 가계의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가계재무관리자의 재무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경조사 및 친인척 관련행사, 노부모부양과 같은 선택적 지출에 대한 가계재무관리자의 경제적 불안이 더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불안 하위영역 중 부채불안에서는 월평균소득( $\beta=-.25, p<.001$ ), 주택소유여부( $\beta=.13, p<.01$ ), 재무지식( $\beta=-.13, p<.05$ )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특성변인들은 부채불안을 약 14% 설명하였다( $F=8.51, p<.001$ ). 이는 가계의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자가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가계재무관리자의 재무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은행, 회사, 주변사람들로부터 빌린 부채에 대한 주관적 불안 정도가 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수록 부채불안이 낮아지는 것은 가계가 주택을 구입할 때 부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계특성변인 가운데 월평균소득, 재무지식, 남편최종학력, 남편직업유형이 경제적 불안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불안의 하위영역에 따라 각 요인의 영향력이 다르나 월평균소득과 재무지식이 거의 대부분의 하위영역에서 의미 있는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제 변인들의 영향력

#### 1) 가계특성변인의 영향력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가계특성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재무관리행동의 각 하위영역과 재무관리행동 전체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 절과 마찬가지로 상관계수 값이 높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우려된 변인들을 제외하고 회귀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독립변인들 중에서 남편직업유형과 아내직업유형, 주택소유여부는 가변인(dummy variable)를 사용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의 가정 위반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잔차 독립성 검정을 실시하고, 극단치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 또한 의심되지 않았다. 조사대상자의 가계특성변인이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가계특성변인 중 재무지식( $\beta=.24, p<.001$ )과 월평균소득( $\beta=.12, p<.05$ )이 재무관리행동 전체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며, 가계특성변인들은 재무관리행동 전체를 약 10% 설명하였다( $F=6.06, p<.001$ ). 이는 가계재무관리자의 재무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의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가계의 재정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재무관리행동을 더욱 잘 수행함을 의미한다.

재무관리행동 하위영역별로 가계특성변인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보면, 소득관리행동에서는 재무지식( $\beta=.25, p<.001$ )과 남편최종학력( $\beta=.21, p<.001$ )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특성변인들은 소득관리행동을 약 14% 설명하였다( $F=8.72, p<.001$ ). 이는 가계재무관리자의 재무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소득관리행동을 더 잘 수행함을 의미한다.

세금관리행동에서는 재무지식( $\beta=.23, p<.001$ ), 남편최종학력( $\beta=.17, p<.01$ )과 아내직업유무( $\beta=.14, p<.01$ )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특성변인들은 세금관리행동을 약 11% 설명하였다( $F=6.41, p<.001$ ). 이는 가계재무관리자의 재무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조사대상 가계의 남편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세금관리행동을 더욱 잘 수행함을 의미한다.

지출관리행동에서는 재무지식( $\beta=.15, p<.01$ )만이 의미 있는

<표 8>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가계특성변인의 영향력

재무관리행동	가계특성변인	B	$\beta$	F value	R <sup>2</sup>	재무관리행동	가계특성변인	B	$\beta$	F value	R <sup>2</sup>
소득 관리 행동	아내연령	-.00	-.00	8.72***	.14	세금 관리 행동	아내연령	.08	.07	6.41***	.11
	남편최종학력	.15	.21***				남편최종학력	.14	.17**		
	남편직업유형 <sup>+</sup>	-.13	-.09				남편직업유형	-.10	-.06		
	아내직업유무 <sup>++</sup>	.05	.03				아내직업유무	.24	.14**		
	주택소유여부 <sup>+++</sup>	.01	.01				주택소유여부	.02	.01		
	월평균소득	.05	.10				월평균소득	.03	.06		
	재무지식	1.10	.25***			재무지식	1.09	.23***			
지출 관리 행동	아내연령	-.01	-.01	1.94*	.04	투자 관리 행동	아내연령	.08	.07	5.88***	.10
	남편최종학력	.06	.08				남편최종학력	.05	.05		
	남편직업유형	-.12	-.08				남편직업유형	.08	.04		
	아내직업유무	.15	.10				아내직업유무	.08	.05		
	주택소유여부	.08	.04				주택소유여부	-.12	-.06		
	월평균소득	-.02	-.04				월평균소득	.10	.18**		
	재무지식	.70	.15**			재무지식	1.03	.17**			
부채 관리 행동	아내연령	-.11	-.09	3.95***	.07	위험 관리 행동	아내연령	-.11	-.10	4.95***	.09
	남편최종학력	-.11	-.12				남편최종학력	.00	.00		
	남편직업유형	-.10	-.05				남편직업유형	.01	.01		
	아내직업유무	-.10	-.06				아내직업유무	.05	.03		
	주택소유여부	.29	.13*				주택소유여부	.24	.13*		
	월평균소득	.00	.00				월평균소득	.09	.18**		
	재무지식	1.03	.19**			재무지식	.53	.12*			
재무 관리 행동 전체	아내연령	-.01	-.02	6.06***	.10	*p<.05, **p<.01, ***p<.001 + : 남편직업유형은 사무·관리·전문직을 1, 나머지는 0으로 가 변인 처리하였음 ++ :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1, 나머지는 0으로 가변인 처리하였음 +++ : 자가 주택은 1, 나머지는 0으로 가변인 처리하였음					
	남편최종학력	.05	.08								
	남편직업유형	-.06	-.05								
	아내직업유무	.08	.07								
	주택소유여부	.09	.06								
	월평균소득	.04	.12*								
	재무지식	.87	.24***								

영향을 미치며, 가계특성변인들은 지출관리행동을 약 4% 설명하였다(F=1.94, p<.05). 이는 가계재무관리자의 재무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지출관리행동을 더욱 잘 수행함을 의미한다.

투자관리행동에서는 월평균소득( $\beta=.18$ , p<.01)과 재무지식( $\beta=.17$ , p<.01)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특성변인들은 투자관리행동을 약 10% 설명하였다(F=5.88, p<.001). 이는 가계의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가계재무관리자의 재무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투자관리행동을 더욱 잘 수행함을 의미한다.

부채관리행동에서는 재무지식( $\beta=.19$ , p<.01)과 주택소유여부( $\beta=.13$ , p<.05)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특성변인들이 부채관리행동을 약 7% 설명하였다(F=3.95, p<.001). 이는 가계재무관리자의 재무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조사대상 가계가 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채관리행동을 더욱 잘 수행함을 의미한다.

위험관리행동에서는 월평균소득( $\beta=.18$ , p<.01), 주택소유형태( $\beta=.13$ , p<.05), 재무지식( $\beta=.12$ , p<.05)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며, 가계특성변인들은 위험관리행동을 약 9% 설명하였다(F=4.95, p<.001). 이는 가계의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계재무관리자의 재무지식 수준이 높을

수록 위험관리행동을 더욱 잘 수행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계특성변인 가운데 재무지식, 월평균소득, 남편최종학력, 주택소유형태, 아내직업유무가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특히 재무지식은 재무관리행동의 모든 하위영역에 의미 있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무관리지식이 많을수록 재무관리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무관리행동을 계획과 수행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재무관리지식이 많을수록 계획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한 Titus 등(1989), 고보선 등(1995), 임정빈 등(1998)의 연구결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임정빈 등(1998)은 계획은 가계관리자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하는 행동 전의 인지적인 활동으로서, 이때 재무관리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가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크게 되므로 재무관리지식이 재무관리계획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또한 남편의 최종학력이 재무관리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무관리행동의 수행정도가 높았으며, 집단별로는 대졸이상 집단과 고졸이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임정빈 등(1998)의

<표 9>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제 변인들의 영향력

재무관리행동	가계특성변인	B	$\beta$	F value	R <sup>2</sup>	재무관리행동	가계특성변인	B	$\beta$	F value	R <sup>2</sup>
소득 관리 행동	아내연령	.02	.02	6.92***	.16	세금 관리 행동	아내연령	.08	.07	5.33***	.13
	남편최종학력	.12	.17***				남편최종학력	.13	.16**		
	남편직업유형 <sup>+</sup>	-.01	-.02				남편직업유형 <sup>+</sup>	-.04	-.06		
	아내직업유무 <sup>++</sup>	-.01	-.02				아내직업유무 <sup>++</sup>	-.04	-.10		
	주택소유여부 <sup>+++</sup>	.02	.01				주택소유여부 <sup>+++</sup>	.03	.01		
	월평균소득	.02	.04				월평균소득	-.01	-.02		
	재무지식	1.08	.24***				재무지식	1.03	.21***		
	소득·자산불안	-.16	-.17**				소득·자산불안	-.18	-.18**		
	필수지출불안	.09	.07				필수지출불안	.03	.02		
부채불안	.03	.03	부채불안	-.03	-.03						
지출 관리 행동	아내연령	.00	.00	2.29*	.06	투자 관리 행동	아내연령	.10	.08	9.24***	.20
	남편최종학력	.07	.09				남편최종학력	.05	.06		
	남편직업유형 <sup>+</sup>	-.08	-.13*				남편직업유형 <sup>+</sup>	-.05	-.08		
	아내직업유무 <sup>++</sup>	-.03	-.07				아내직업유무 <sup>++</sup>	-.02	-.04		
	주택소유여부 <sup>+++</sup>	.08	.04				주택소유여부 <sup>+++</sup>	-.08	-.04		
	월평균소득	-.03	-.07				월평균소득	.04	.08		
	재무지식	.67	.14**				재무지식	.85	.16**		
	소득·자산불안	-.15	-.15*				소득·자산불안	-.38	-.35***		
	필수지출불안	.06	.04				필수지출불안	.24	-.14**		
부채불안	-.00	-.00	부채불안	-.00	-.00						
부채 관리 행동	아내연령	-.09	-.07	3.44***	.09	위험 관리 행동	아내연령	-.09	-.08	4.94***	.12
	남편최종학력	-.17	-.18**				남편최종학력	-.03	-.05		
	남편직업유형 <sup>+</sup>	.06	.08				남편직업유형 <sup>+</sup>	.03	.06		
	아내직업유무 <sup>++</sup>	.04	.08				아내직업유무 <sup>++</sup>	-.01	-.04		
	주택소유여부 <sup>+++</sup>	.25	.11*				주택소유여부 <sup>+++</sup>	.23	.12*		
	월평균소득	-.03	-.05				월평균소득	.05	.10		
	재무지식	1.02	.19**				재무지식	.42	.09		
	소득·자산불안	-.07	-.06				소득·자산불안	-.11	-.12*		
	필수지출불안	-.12	-.07				필수지출불안	-.16	-.11		
부채불안	.12	.09	부채불안	-.06	-.05						
재무 관리 행동 전체	아내연령	-.00	.00	5.91***	.14	*p<.05, **p<.01, ***p<.001 + : 남편직업유형은 사무·관리·전문직을 1, 나머지는 0으로 가 변인 처리하였음 ++ :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1, 나머지는 0으로 가변인 처리하였음 +++ : 자가 주택은 1, 나머지는 0으로 가변인 처리하였음	아내연령	-.00	.00		
	남편최종학력	.03	.05				남편최종학력	.03	.05		
	남편직업유형 <sup>+</sup>	-.02	-.04				남편직업유형 <sup>+</sup>	-.02	-.04		
	아내직업유무 <sup>++</sup>	.01	.04				아내직업유무 <sup>++</sup>	.01	.04		
	주택소유여부 <sup>+++</sup>	.09	.06				주택소유여부 <sup>+++</sup>	.09	.06		
	월평균소득	.01	.02				월평균소득	.01	.02		
	재무지식	.82	.23***				재무지식	.82	.23***		
	소득·자산불안	-.18	-.24***				소득·자산불안	-.18	-.24***		
	필수지출불안	.02	.02				필수지출불안	.02	.02		
부채불안	.02	.02	부채불안	.02	.02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2)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제 변인들의 영향력

가계재무관리자의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특성변인과 경제적 불안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제적 불안의 하위영역은 5가지로 구성되었으나, 소득·자산불안, 재정안정성불안, 선택지출불안 간의 상관계수( $r=.51\sim.61$ )가 높아 다중공선성이 우려되어 소득·자산불안을 선택하고 재정안정성불안과 선택지출불안은 회귀모형에서 제외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의 가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잔차 독립성 검정을 실시하고, 극단치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의심되지 않았다.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9>와 같다.

재무관리행동 전체에 미치는 제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적 불안 하위영역에서는 소득·자산불안( $\beta=.24, p<.001$ )이, 가계특성변인에서는 재무지식( $\beta=.23, p<.001$ )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4%였다( $F=5.91, p<.001$ ). 즉, 가계재무관리자가 가계의 총소득과 자산 수준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을수록, 가계재무관리자의 재무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재무관리행동을 잘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무관리행동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소득관리행동에서는 재무지식( $\beta=.24, p<.001$ ), 남편최종학력( $\beta=.17, p<.01$ ), 소득·자산불안( $\beta=-.17, p<.01$ )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소득관리행동을 약 1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6.92, p<.001$ ). 즉 가계재무관리자의 재무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조사대상자 가계의 남편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가계의 총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대한 가계재무관리자의 불안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관리행동을 잘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관리행동에서도 또한 재무지식( $\beta=.21, p<.001$ ), 소득·자산불안( $\beta=-.18, p<.01$ ), 남편최종학력( $\beta=.16, p<.01$ )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세금관리행동을 약 1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5.33, p<.001$ ). 이는 가계재무관리자의 재무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과 자산에 대한 불안이 낮을수록, 남편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세금관리행동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출관리행동에서는 소득·자산불안( $\beta=-.15, p<.05$ ), 재무지식( $\beta=.14, p<.05$ ), 남편직업유형( $\beta=-.13, p<.05$ )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지출관리행동을 6%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29, p<.05$ ). 즉 가계재무관리자가 갑작스런 지출에 대비한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총소득과 총자산 및 저축수준에 대해 만족할수록, 효율적인 지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재무지식이 높을수록, 남편의 직업이 사무·관리·전문직이 아닌 경우 지출관리행동을 더욱 잘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관리행동에서는 소득·자산불안( $\beta=-.35, p<.001$ ), 재무지식( $\beta=.16, p<.01$ ), 필수지출불안( $\beta=.14, p<.01$ )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투자관리행동을 약 20% 설명하였다( $F=9.24, p<.001$ ). 즉 소득유입의 규칙성과 소득액 및 저축수준에 대한 가계재무관리자의 불안 수준이 낮고 재무설계 기초를 포함한 예금·주식·부동산·신용·부채 등에 대한 재무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필수품 구매와 같은 필수적인 지출에 대한 불안 수준이 낮을수록 투자관리행동을 잘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채관리행동에서는 재무지식( $\beta=.19, p<.01$ ), 남편최종학력( $\beta=-.18, p<.01$ ), 주택소유여부( $\beta=.11, p<.05$ )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부채관리행동을 약 9%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3.44, p<.001$ ). 이는 주식·부동산·신용·부채 등에 대한 가계재무관리자의 재무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의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주거 형태에 있어서 월세나 전세보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부채관리행동을 더욱 잘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용카드 사용시 사용액이 생활비의 10%가 넘지 않도록 자제하고, 가계자금에 필요할 때 적절한 대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부채가 있을 경우 1년 단위로 가계의 부채상환결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부채관리행동은 재무지식과 남편최종학력, 주택소유여부에 영향을 받

는데, 남편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부채관리행동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부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관대함' 인식 이 더 강하거나, 부채를 지지 않아서 월부채 상환 확인여부를 묻는 문항 등에 높은 점수를 주지 못한 측정상의 오류일 수 있다.

위험관리행동은 소득·자산불안( $\beta=-.12, p<.05$ )과 주택소유여부( $\beta=.12, p<.05$ )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약 12%였다( $F=4.94, p<.001$ ). 즉 소득과 자산에 대한 불안이 낮을수록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계재무관리자는 위험관리행동을 더욱 잘 수행함을 의미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무관리행동 전체와 재무관리행동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각기 다르나 거의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소득·자산불안과 재무지식임을 알 수 있다. 소득·자산불안은 부채관리행동을 제외한 재무관리행동 하위영역(소득관리, 세금관리, 지출관리, 투자관리, 위험관리)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재무지식은 위험관리행동을 제외한 재무관리행동 하위영역(소득관리, 세금관리, 지출관리, 투자관리, 부채관리)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 수준을 향상시키고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별 가계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무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월평균소득은 가계특성변인만을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모형<표 8>에서는 재무관리행동 전체와 투자관리행동, 위험관리행동에서 의미 있는 변인이었으나 경제적 불안 변인을 통제한 경우 그 영향력이 사라졌다. 월평균소득이 필수지출불안을 제외한 모든 경제적 불안 하위영역에서도 영향력 있는 변인인 것<표 7>을 감안한다면 월평균소득은 경제적 불안을 매개로 하여 재무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경제적 불안과 재무관리행동의 관계를 연구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주부를 가계관리자로 보고 주부를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는 남편과 아내 중 주된 가계관리자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설문 응답을 하게 함으로써 가계관리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제변인들의 영향력 분석에서도 다른 주요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여 변인들의 허위효과를 배제시켜 엄격한 영향변인만을 산출하였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가계재무관리자의 경제적 불안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정안정성 불안과 소득·자산불안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고 부채불안과 필수지출불안은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회복의 반대 변인이 등장하거나 경기가 침체기로 빠져들 때 달라질 수 있으며, 조사지역을 지방이 아닌 수도권으로 확대할 경우 체감하는 경기 수준의 차이로 경제적 불안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재무관리행동은 중간 점수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위험관리행동, 세금관리행동, 부채관리행동, 소득관리행동, 지출관리행동, 투자관리행동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관리행동 영역에 있어 투자의 선택이나 은퇴와 유산 계획 등이 중요시 여겨지는 외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가 곤란에 처하지 않게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가계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가계재무관리자의 재무관리 능력 함양을 돕는 재무교육을 실시할 때 무엇보다 투자관리행동과 같이 재무관리 영역의 취약한 부분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를 지원해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투자관리행동 점수가 낮은 이유가 투자할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염려가 크고 그에 관한 재무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 투자에 관한 더욱 신뢰할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투자에 관한 지식, 태도 등과 같은 인적 자원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경제적 불안에 대한 가계특성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편의 최종학력, 재무지식, 월평균 가계소득이 가계재무관리자의 경제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이 경제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 수준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고용 및 소득이 불확실한 직업지위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나 재무교육에 대한 기회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모든 가계재무관리자가 어린시절부터 성인기까지 경제 재무교육을 받아 재무지식 수준이 높아진다면 향후 경제적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가계특성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가계관리자의 재무지식은 재무관리 전체와 모든 하위영역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더 많이 아는 것은 불안을 감소시켜주며, 합리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무지식은 경제적 불안을 줄여주며 재무관리행동을 잘 하게 하는 역할을 하여 재무지식을 향상시키는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었다. 월평균 소득은 재무관리행동 전체와 투자관리행동, 위험관리행동에 정적 영향을, 남편최종학력은 소득관리행동과 세금관리행동에 정적 영향을, 주택소유여부는 부채관리행동과 위험관리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어서 월평균 소득과 주택소유와 같은 물적자원과 학력과 같은 인적자원이 재무관리에 긍정적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재무관리행동 전체와 재무관리행동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각기 다르나 거의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소득·자산불안과 재무지식이었다.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 수준을 향상시키고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별 가계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무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득·자산불안은 소득불안과 자산불안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소득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득원천을 다양화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 막연한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도록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차원에서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또한 자산에 대한 불안은 자산이 없거나 자산의 형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료되므로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관리행동을 통해 자산의 보전과 증식에 힘쓰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여겨진다. 여기에서 투자관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한 저축, 비교적 안전성이 보장된 채권투자 등을 의미하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기와 구별되어야 한다.

여섯째, 경제적 불안 하위영역 가운데 소득·자산불안은 재무관리행동 전체와 거의 모든 하위영역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나 부채관리행동에서는 유의한 수치를 보여주지 못했다. 부채관리행동에는 소득·자산불안 뿐 만 아니라 필수지출불안, 더욱이 부채불안조차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어서 부채관리행동은 가정 내외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지각보다는 오히려 재무지식이나 학력, 주택소유 등의 객관적 요소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편 투자관리행동은 소득·자산불안뿐 아니라 필수지출불안에 대해서도 부적 영향을 받아 생필품 등의 생활비 지출에 대한 불안이 큰 가계관리자는 투자관리행동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투자관리행동이 재무관리행동 하위영역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가계에 가장 부족한 재무관리행동인 투자관리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필수지출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필수지출불안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인 재무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게 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가계재무관리자이므로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가계재무관리자로 확대해석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표집을 보다 광범위하게 실시하여 보다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설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자신의 불안을 숨기거나 부정하려고 솔직하게 답하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심리적 불안과 같은 주관적인 변인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거나 면접법을 사용하는 등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재무관리행동의 투입변인으로 가계특성변인과 경제적 불안을 살펴보았으나 재무관리행동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이 외에 경제적 기대감,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가계 재무관리자의 주관적 특성변인 등 다양한 변인이 존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가계의 주관적 특성변인을 비롯한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월평균소득은 가계특성변인만을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모형에서는 재무관리행동 전체와 투자관리행동, 위험관리행동에서 의미 있는 변인이었으나 경제적 불안 변인을 통제할 경우 그 영향력이 사라졌다. 월평균소득이 필수지출불안을 제외한 모든 경제적 불안 하위영역에서도 영향력 있는 변인인 것을 감안한다면 월평균소득은 경제적 불안을 매개로 하여 재무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으며, 이를 밝히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강혜경(1990). 도시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학가정학회지*, 82, 87-103.

계선자 · 유을용(2002). 도시전업 주부의 재정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13-26.

고보선 · 이영호(1995). 가계경제복지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평가 변인의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3(6), 269-280.

곽인숙(1989).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거소비와 주거이동. *전주우석대학 논문집*, 11, 141-159.

김민정(1994).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상호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미현(1993). 주부의 가정생활상의 stress와 심리적 손상에 관한 연구; 광주시에 거주하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93, 111-126.

김순미(1993).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도 관계분석-체계론의 적용 가능성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95-207.

김시월 · 박배진(1999). 사교육비 부담의 대처행동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0, 67-79.

김은양(1994).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가계관리행동이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숙(1996). 재정상황에 대한 인지도가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6), 405-419.

김효정(2000). 체계론에 의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산 및 경남 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53-65.

노자경 · 최은숙(1991). 농가의 경제적 복지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2(2), 63-76.

노자경(1996). *농가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선옥(1996). *가계재정관리 유형에 따른 재정문제와 그 대처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현미(1986). *가정관리능력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희선 · 최현자(1996).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농가주부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화폐관리행동,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및 노후준비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67-179.

범수인 · 문숙재(199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투자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88, 199-217.

서정희 · 홍순명(2000). *대학생의 경제적 불안과 식생활 대처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8(1), 39-49.

이상협(1999). *도시가계의 재무관리와 재정만족도의 영향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34, 71-84.

이선형(1995). *노인단독가구의 가계재정관리와 경제생활 만족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선형 · 이연숙(1997). *노인단독가구의 가계재정관리와 경제생활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 31-43.

이영옥(1990). *어머니의 가정관리 능력과 청소년의 금전관리지도*.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우 · 최덕경(1992). *도시주부의 가정생활문제 인지와 스트레스 정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 115-130.

이종혜(1993). *도시가계의 경제적 안정도와 재정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정빈 · 조미환 · 이영호(1995). *농촌가정의 의사소통, 재무관리행동, 가정생활만족 -Deacon & Firebaugh의 체계적 접근법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56-169.

임정빈 · 조미환 · 이영호(1998).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41-153.

정서린 · 장윤옥(2007). *고용 · 소득관련 변인과 경제적 불안에 따른 주부의 재무관리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5(10), 59-71.

정운영(2001). *재무관리체계모형을 적용한 도시가계의 재무건전성*.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운영 · 황덕순 · 홍은실(2002).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선행연구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125-138.

정혜경(1999). *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소비행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동필 · 양세정 · 배미정(2003). *도시가계의 재무지식 및 재*



- 무관리가 객관적 재무건전성과 주관적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333-348
- 최동숙(1991). 가정자원관리체계 구성요소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 163-178.
- 홍향숙(1999).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재무관리 행동과 재정만족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덕순(1995). 도시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대처행동.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eutler, Ivan F., Mason, Jerald W.(1987). *Family Cash Flow Budgeting*. *Home Economics Journal*, 16(1), 3-12.
- Caplovitz, D.(1979). *Making ends meet -how families cope with inflation and recession-*. Sage Library of Social Research Vol. 86, Sage Publication, Inc., Beverly Hills London.
- Fitzsimmons, V. S. T. K., Hira, J. W., Bauer & Hafstrom, J. L.(1993). *Financial management: Development of scal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257-274.
- Lemper, J., Clark-Lampers, D., & Simons, R.L.(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 25-39.
- Liker, J.K., Elder, G.(1983). Economic hardship and marital relations in the 1930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343-359.
- Parrotta, J. L., & Johnson P. J.(1998). *The impact of financial attitude and knowledge on financial management and satisfaction of recently married individual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9(2), 59-74.
- Titus, P. M., Fanslow, A. M., & Hira, T.K.(1989). *Net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309-317.
- Voydanoff, P.(1990).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of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Nov.), 1099-1115.
- Voydanoff, P. & Donnelly, B. W.(1989). *Economic distress and mental health: The role of family coping resources and behaviors*.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2), 139-161.

접수일 : 2010년 07월 15일

심사일 : 2010년 08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0년 10월 15일